

한국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의 영국 공연 현지화에 대한 멀티모달 분석 및 수용 연구*

홍승연(한국외국어대학교)

홍정민(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1. 서론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지난해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한국 창작 작품 최초로 작품상을 비롯한 6개 부문을 석권하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한 한국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그밖에 여러 작품들이 다양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수상 및 흥행 실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마리 퀴리>(Marie Curie)는 2024년 한국 창작 작품 최초로 웨스트엔드에서 정식 공연을 올렸으며 2022년에는 폴란드의 바르샤바 뮤직 가든스 페스티벌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물뿌리개상’을 수상한 바 있다(용원중, 2022; 이정국, 2025). <팬레터>(Fan Letter)의 경우 2024년에는 일본 오다시마 유시·번역 희곡상 작품상·번역상을, 2025년에는 중국뮤지컬협회 연례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 등 7개 부문을 휩쓸었으며, 2024년에는 영미권 진출을 위해 런던에서 쇼케이스(showcase)를 선보였다(정수영, 2025). 최근에는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이 2025 브로드웨이월드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7041975)

UK/웨스트엔드 어워즈(BroadwayWorld UK / West End Award)에서 최우수 콘서트 프로덕션 부문¹⁾을 수상했는데, 해당 작품은 정식 공연은 아니지만 지난 2024년과 2025년 웨스트엔드에서 두 차례 쇼케이스를 진행했고 2027년 런던 정식 공연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정국, 2025; 최승연, 2025).

이처럼 다양한 진출 시장 가운데 특히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로 대표되는 영미권의 경우 뮤지컬의 본고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현재 정체되고 있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성장 동력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2024-2025년을 기준으로 뉴욕의 브로드웨이와 런던의 웨스트엔드 시장 규모는 각각 한국의 5-6배, 4배에 달한다(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Broadway League; Society of London Theatre & UK Theatre, 2025, p. 5). 실제로 지속적, 장기적 수익 창출 활로로서 해당 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뉴욕 브로드웨이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정식 공연이나 이를 위한 쇼케이스를 진행한 한국 창작 작품은 15개에 달한다(최승연, 2024; 최영현, 2023). 아울러, 영미권 시장은 한국과 언어문화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현지 관객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요소에 대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즉, 해당 시장에 진출한 작품의 현지화 양상을 면밀히 고찰하는 작업은 다른 작품에도 영미권 진출을 위한 유용하고 실용적인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창작 뮤지컬 가운데 최초로 영미권 시장에 정식 공연을 올린 <마리 퀴리>의 현지화 양상을, 대본, 가사 등의 언어 기호뿐 아니라 무대, 안무, 음악 등 다양한 비언어 기호를 아우르는 멀티모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러한 현지화 양상에 대한 수용을 현지의 평단과 관객 반응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향후 뮤지컬 작품의 영미권 진출을 위한 좀 더 정교하고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2024년 10월 브로드웨이에서 정식 공

1) 공연 전문 매체 ‘브로드웨이월드’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영국 전역에서 한 해 동안 선보인 연극·뮤지컬·콘서트 공연을 대상으로 관객 온라인 투표 100%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고의 콘서트 프로덕션’ 부문은 콘서트형 쇼케이스와 스테이지 콘서트를 평가하는 부문으로,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이정국, 2025).

연을 시작한 <어쩌면 해피엔딩> 보다 앞서 런던 정식 공연을 진행한 작품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영미권 시장에 진출한 한국 최초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주목할 점은 번역학 연구 대상으로서, 그리고 영미권 진출을 추진 중인 여타 작품에 대한 직접적 지침으로서 이 작품이 지니는 가치이다. <마리 퀴리>와 <어쩌면 해피엔딩> 모두 개발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긴 했지만 <어쩌면 해피엔딩>은 한국과 미국 관객의 수요를 동시에 타진하면서²⁾ 대본과 가사도 처음부터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제작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을 택한 반면(박정선, 2025; 서지혜, 2024) <마리 퀴리>는 작품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 한국어 대본과 가사를 한국인 번역가가 1차 번역한 뒤 현지 창작진이 이를 윤색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거쳤다. 즉, 한국어 대본과 가사를 원천텍스트(Source Texts, ST)로 하여 영어로 된 목표텍스트(Target Texts, TT)를 생산하는 엄밀한 의미의 ‘번역’ 과정을 거친 작품인 것이다. 특히, 현재 영미권 진출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창작 작품이 <마리 퀴리>처럼 한국어 공연으로 국내 시장에서 안착한 후 한국어 대본 및 가사를 영어로 옮기고 다양한 기호를 현지화하는 순차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보다 다양한 작품의 진출에 좀 더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한국 뮤지컬의 영미권 및 라이선스 수출 가속화와 입말 번역의 중요성

한국 창작 뮤지컬은 1997년 <명성황후>의 뉴욕 브로드웨이 링컨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꾸준히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다. 한국 뮤지컬의 해외

2) 한국에서는 2015년 리딩 및 트라이아웃(tryout) 공연 후 2016년 10월 초연되었으며, 미국에서는 2016년 뉴욕 리딩 공연 및 워크숍, 2020년 애틀랜타 트라이아웃 및 두 번의 워크숍을 진행한 후 2024년 10월 브로드웨이에서 정식 공연을 시작했다(이태훈, 2025; 허미선, 2025).

진출은 크게 ‘창작 뮤지컬의 투어 공연’,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의 투어 공연’, ‘창작 뮤지컬의 라이선스 수출 및 현지 공동제작’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p. 42) 초반에는 미국, 영국 등으로의 ‘투어 공연’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2010년대부터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어 공연’이 두드러지면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2020년대 이후부터는 다시 영미권, 진출 유형으로는 ‘라이선스 수출 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승희, 2021. 3. 16.).

이처럼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초점이 영미권 및 라이선스 수출로 이동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미권 시장은 뮤지컬의 본고장이라는 상징적인 측면은 물론, 한국 뮤지컬 시장의 지속적, 장기적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뉴욕의 브로드웨이와 런던의 웨스트엔드는 2024-2025년을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각각 18억9300만 달러(한화 2.85조 원)³⁾과 10억 파운드(2.03조 원)로, 5000억 원을 약간 웃도는 한국의 5-6배, 4배에 달한다(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Broadway League; Society of London Theatre & UK Theatre, 2025, p. 5). 반면, 한류의 확산으로 2010년부터 K-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집중되어 온 일본과 중국 시장 규모는 각각 8,000억 원, 760억 원에 그친다(고승희, 2021. 4. 7.; 박병성, 2021, p. 8; 서은영, 2017; 이해성, 2021; 최영현, 2023). 실제로, 2020년 이후 한국 창작 작품의 해외 진출 시장이 영미권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승희, 2021. 3. 16). 특히, 한국과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영미권은 언어 및 문화 장벽이 높기 때문에 진출 과정에서 대본과 가사를 현지 관객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는 문화적 중재의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다. 실제로 영미권 진출을 추진 중인 제작사들이 현지화 과정에서 대본의 영문 번역에 특히 공을 들였으며 해당 시장의 문화, 정서, 취향 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문화권의 다양한 가치와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번역은 작품의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임가을, 2023; 최승연, 2024; 최영현,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둘째, 라이선스 방식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창작 작품이 택하고 있는 투

3) 2026년 6월 1일 환율 적용

어 방식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승희, 2021. 3. 16.; 박민선, 2013; 이동인, 2023). 한국 창작 작품의 해외 투어 공연은 아이돌 스타나 국제적 인지도를 이용한 개인 역량에 의존한 것으로 K-뮤지컬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라이선스 수출이 바람직하다(고승희, 2021. 3. 16.; 박민선, 2013; 이동인, 2023). 라이선스 수출은 공연을 주최하는 현지의 기획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지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진출 형태로, 일단 계약이 성사되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김선영과 이의신, 2018, p. 79). 이에 최근 해외 진출 유형에서도 초점이 라이선스 수출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2014-2015년부터 라이선스 공연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의 경우 2015년 이후 라이선스 형태로 매해 2~3편의 작품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2013년 <김종욱 찾기>를 시작으로 라이선스 공연이 증가하면서 2019년 공연된 한국 창작 뮤지컬 12편 중 11편이 라이선스 형태였다(김선영과 이의신, 2018, pp. 76-78; 최영현, 2023). 또, 2019년과 2016년부터는 라이선스 공연 건수가 투어 공연 건수를 웃도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박병성, 2021, p. 12, 15).

실제로 영미권 시장과 라이선스 방식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202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성공한 창작 뮤지컬을 영미권 시장에 라이선스 형태로 선보이려는 시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어쩌면 해피엔딩>은 2020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트라이아웃 공연을 올린 후 2024년 10월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렸고 <마리 퀴리> 역시 두 차례의 영국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4년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영어 버전을 정식으로 개막한 바 있다. 정식 공연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해외 제작자, 투자자 등에 작품을 먼저 선보이는 쇼케이스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창작 작품의 영미권 진출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한 작품은 정식 공연을 올린 <마리 퀴리>를 제외하더라도 <광주>(Gwangju), <라흐헤스트>(L'art reste), <레드북>(Red Book), <마이 버킷 리스트>(My Bucket List), <인사이드 윌리엄>(Breaking the Quill), <크레이지 브레드>(Crazy Bread), <팬레터>(Fan Letter) 등 총 14개에 달한다(임가을, 2023; 최승연, 2024, 2025; 최영현,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이처럼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에서 영미권 및 라이선스 수출로 초점이 이동하면서 이 과정에 개입되는 번역과 현지화 역할의 중요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우선, 초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투어 공연’은 번역된 자막을 통해 대사와 가사가 전달되지만 외국인 배우가 눈앞에 있는 만큼 관객들은 해외 작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람을 하게 된다. 반면 ‘라이선스 공연’의 경우 현지의 배우가, 현지의 언어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대사와 가사가 처음부터 현지 언어로 쓰여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번역되어야 한다. 특히 영미권 관객들이 자막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박병성, 2021, p. 22) 해당 지역 진출에서는 자막보다 입말 번역의 중요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배우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는 투어 공연과 달리 라이선스는 작품이라는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목표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번역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셋째, 문화적으로 가까운 아시아와 달리 영미권 시장은 문화적인 간극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훨씬 많다. 특히 한국 작품의 강점이 탄탄한 스토리, 세밀한 감정 표현에 있다는 점은 대사와 가사를 영미권 관객의 눈높이와 정서에 가급적 가깝게 전달하기 위한 번역 작업이 매우 복잡하고도 중요함을 시사한다(장병호, 2024). 즉, 번역은 현재 한국 창작 뮤지컬 해외 진출의 키워드인 ‘영미권으로의 라이선스 수출’ 성공을 위해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해당 현상을 고찰하는 본 연구는 여타 작품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한국 뮤지컬 산업의 발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2.2 뮤지컬 작품 분석에서 멀티모달적 접근의 중요성

뮤지컬은 다양한 언어 및 비언어 기호가 상호작용하면서 총체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멀티모달 텍스트인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뮤지컬 번역 연구 대부분이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여러 기호 간 상호작용을 분석에 포함하는 멀티모달적(multi-modal) 접근을 택하고 있다. 국내 번역학에서 2008년 처음 뮤지컬 번역 논문이 발표된 이후 2026년 1월 말까지 약 20년에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총 35편의 관련 논문(학위논문 포함)이 출간된 가운데 초반 노래 가사 분석에 집중되어 있던 연구의 초점은 2020년대 초반부터 뮤지컬 번역 연구 내 멀티모달적 접근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이지민과 정지윤, 2022; 홍승연, 2022; 홍정민, 2021, 2022; Carpi, 2020; Hong, 2020).

예를 들어, 홍(Hong, 2020)은 국내 대표 대극장과 중소극장 흥행작인 <지킬 앤 하이드>(Jekyll & Hyde)와 <쓰릴미>(Thrill me)에서 금기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홍정민(2021)의 경우 패밀리 뮤지컬 <마틸다>(Matilda the Musical)의 가사가 주요 목표 관객인 아동을 감안하여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연극학에서 제시된 에실린(Esslin, 1987, p. 106)과 코우잔(Kowzan, 1968)의 분류에 기반하여 다양한 시각 기호(동작, 안무, 무대, 조명, 의상, 소품, 표정,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와 청각 기호(단어, 어조, 음악, 음향 효과)의 기능과 이들 간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홍승연(2022)의 경우 뮤지컬을 음악, 가사, 대사, 안무, 무대장치 등이 통합된 멀티모달 텍스트로 보고 작품을 분석한 뒤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언했다. 이 연구는 특히 뮤지컬의 멀티모달 요소를 스톡클(Stockl, 2004)이 제시한 핵심모드(Core modes)와 하위모드(Sub-modes)로 계층화하여 매우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비언어 요소의 핵심모드는 안무, 무대장치, 음악/사운드 세 가지이며 이들 핵심모드의 하위모드는 춤동작/손동작/몸짓/군무, 미장센/무대배경/조명/의상/소품, 넘버/박자/배경음/효과음으로 구분했다. 또, 언어 요소의 핵심모드는 대사와 가사, 각 하위모드는 어조/억양/발화속도/휴지, 의미/프레이징/리듬/라임/강세 등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들 요소 간 상호작용을 ‘모드 앙상블(mode ensemble)’이라는 용어로 부르면서 가사 모드, 가사-음악 및 사운드 모드 간 앙상블, 가사-안무 모드 앙상블, 가사-안무-무대장치 모드 등 세 개 이상의 핵심모드 앙상블을 고찰, 다양한 모드 간 상호작용을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

이지민과 정지윤(2022) 역시 뮤지컬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의 대표 넘버 *One Day More*의 한국어 가사 번역을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여기서 뮤지컬의 비언어적 요소는 청각과 시각 요소로 구분되며 청각 요소는 다시 음악과 음향 효과로, 시각 요소

는 무대와 배우로 나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무대는 무대장치, 조명, 도구로, 배우는 배치, 동선, 연기(표정, 춤, 몸짓), 외양(신체적 외모, 헤어스타일, 분장, 소품, 의상) 등으로 좀 더 세부적인 분류를 진행함으로써 분석의 정교성을 높였다.

이들 연구는 비언어 및 언어 요소, 기호, 모드 등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번역 양상을 점검함에 있어 멀티모달리티라는 뮤지컬 장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사와 대사 등의 언어 기호뿐 아니라 음악, 동작, 무대, 의상, 소품 등 다양한 비언어 기호의 기능과 이들 간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정교성과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본 연구 역시 이들 선행연구의 접근을 반영하여 작품의 현지화 과정에서 다양한 멀티모달 요소의 변화를 점검하고자 한다. 다만 용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뮤지컬 텍스트의 의미를 구현하는 각 요소를 ‘기호’로 표현하고 각 기호간 상호작용과 그 의미구현의 방식 및 변화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은 3.2 연구방법에서 보다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3. 분석 텍스트 및 연구절차

3.1 뮤지컬 <마리 퀴리>

본 연구의 분석 텍스트인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는 국내에서 퀴리 부인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을 누군가의 아내로서보다 물리학자이자 여성 선구자로서 마리 스크워드포스카 퀴리(Maria Skłodowska-Curie)의 삶에 초점을 둔다. 마리는 자신만의 이름을 알리고 과학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고향인 폴란드를 떠나 파리에 도착한다. 결국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새로운 원소인 라듐을 발견하며 노벨상을 수상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라듐이 암 치료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속적 중독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마리 퀴리>는 이처럼 자신이 발견한 라듐의 두 가지 양면성 사

이에서 깊은 고민을 하는 한 여성 과학자로서의 삶을 재조명하는 작품이다 (2025년 한국 공연 프로그램북 참고).

뮤지컬 <마리 퀴리>는 학술적으로 연구의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2020년 국내에서 초연 이후 2021년 제5회 한국뮤지컬 어워즈에서 대상, 연출상, 극본상 등을 포함하여 5관왕을 차지하면서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았고 꾸준히 해외무대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2022년에는 마리 퀴리의 고향인 폴란드에서, 2023년에는 일본에서 라이선스 형태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2024년 6월, 한국 창작 뮤지컬로는 최초로 런던 웨스트엔드에 수출되어 약 두 달간 장기 공연되었다. <마리 퀴리>는 폴란드 출생의 프랑스 과학자이자 노벨상을 2회 수상한 마리 퀴리의 삶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영미권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작품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오히려 소재의 친숙성으로 인해 한국 배우가 공연할 때보다 현지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투어방식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공연 대본과 음악을 바탕으로 한국 창작진과 영국 연출진들이 함께 현지화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대본과 음악 외에 무대장치부터 의상 등은 모두 영국에서 자체 창작하는 방식인 일명 논레플리카(non-replica)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영국 현지 배우들이 오디션을 거쳐 캐스팅되고 무대에 올랐다. 이때 한국 창작진이 프로듀서로서 함께하고 영어 대본 1차 번역 작업에 어시스턴트 프로듀서이자 번역가인 류아름비가 참여하였으며, 이후 영어 대본 번안은 아리아 엔터테인먼트의 매니저인 톰 램지(Tom Ramsay)가, 영어 가사 번안은 음악감독이자 작사, 작곡가인 엠마 프레이저(Emma Fraser)가 협업했다(2024년 런던 공연 프로그램북 참고). 이처럼 영국 및 한국 창작진이 공동 작업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번역 과정에 대한 면밀한 고찰은 한국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여타 한국 뮤지컬의 해외 진출에 유용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멀티모달 텍스트로서의 뮤지컬 <마리 퀴리>를 연구하기 위하여 텍스트 분석을 시행하고 추가로 현지 관객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텍스트

분석은 한국 공연과 영국 공연을 각각 직접 관람하고 필요한 경우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두 작품의 멀티모달적 특징 차이를 파악하고자 했다. 즉, 언어 기호뿐 아니라 비언어 기호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러한 상호작용이 두 작품의 의미 형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한국 공연은 삼연을 거치며 점차 러닝타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런던으로 진출하기 전 가장 최근 공연 및 프레스콜 영상을 참고하였다. 이후 2025년도 실황 공연을 관람하고, 그 공연을 녹화 중계한 영상도 함께 분석하였다. 영국 공연은 런던에서 실황으로 관람하였다. 본 작품은 *Marie Curie*라는 제목으로 런던 채링 크로스 극장(Charing Cross Theatre)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세 차례 공연을 감상하면서 현장 관찰노트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작품의 러닝타임 및 넘버 구성, 전체적인 내러티브의 변화, 무대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 포스터, 프로그램북과 같은 결텍스트도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실제 관람을 통해 두 작품의 두드러진 차이를 파악한 후 그러한 특징이 현지 관객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단의 평론과 관객의 관람평을 분석하였다. 평단의 평론은 『더 가디언(The Guardian)』, 『뮤지컬 씨어터 리뷰』(Musical Theatre Review), 『씨어터 바이브』(Theatre Vibe), 『씨어터 앤 아트 리뷰즈』(Theatre and Arts Reviews), 『씨어터 앤 토닉』(Theatre and Tonic) 등 영국에서 발간되는 주요 평론 매체에서, 관객의 관람평은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관객들의 관람평을 제공하는 쇼스코어닷컴(Show-score)에서 추출했다. 특히, 이들 자료는 대사 및 가사, 음악, 무대, 안무, 연기 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본 연구가 시도하는 멀티모달 텍스트로서 뮤지컬 번역 분석과 이에 대한 현지의 수용 양상 간 연결성을 높임으로써 성공적 수용 방안 모색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4. 분석 결과

뮤지컬 <마리 퀴리>의 한국 공연과 영국 공연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러닝타임 및 넘버의 구성, 무대장치, 내러티브의 변화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1 러닝타임 및 넘버 구성

두 공연의 명확한 차이 중 하나는 바로 러닝타임이다. 한국 공연의 러닝타임은 15분의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전체 150분이고 영국 공연은 인터미션 없이 약 100분 정도로, 인터미션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영국 공연이 한국 공연에 비해 약 35분가량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넘버 간 구성과 스토리라인에도 변화가 있었다. 두 공연의 넘버를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마리 퀴리> 한국 공연과 영국 공연의 넘버 비교(출처: 각 프로그램북)

<마리 퀴리>		Marie Curie
1막	1. Prologue	1. Prologue
	2. 모든 것들의 지도	2. The Map of Everything
	3. 블랙 미스 폴란드	3. Miss Poland
	4. 끝까지	4. The Limit / The Limit (Reprise)
	5. 두드려	5. Forty-five Months
	6. 라듐 파라다이스	6. Radium Paradise (Part one)
	7. 잘 지내요	7. Radium Paradise (Part two)
	8. 예측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8. Hope you're Well
	9. 폴란드의 별	9. Unpredictable, Unidentified
	10.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	10. The Memorial
	11. 문제 없어	11. Marie's Plea
	12. 또 다른 이름	12. No Problem
2막	13. 길	13. Another Name
	14. 죽음의 라인	14. The Conflict
	15. 어둠 속에서	15. Line of Death
	16. 길 Reprise	16. In the Darkness
	17. 죽은 직공들을 위한 볼레로	17. The Conflict (Reprise)

	18. 그댄 내게 별	18. Bolero
	19. 예측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Reprise	19. You are the reason
	20. 끝까지 Reprise	20. Unpredictable, Unidentified (Reprise)
	21. 모든 것들의 지도 Reprise	21. Finale

<표 1>을 살펴보면 한국 공연과 영국 공연은 넘버 순서나 구성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 개수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러닝타임이 축소되었음에도 특정 넘버가 제외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가장 큰 변화라면 넘버와 넘버 사이의 스토리가 핵심 서사 위주로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한국 공연은 연대와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등장인물 간의 관계와 개인의 내면적 딜레마 등 감정과 사건에 대한 서사를 굉장히 자세히 풀어나간다. 반면, 영국 공연은 인물 간의 관계성보다 개인의 서사가 핵심 스토리 위주로 축약되면서 감정 전달 방식과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국 공연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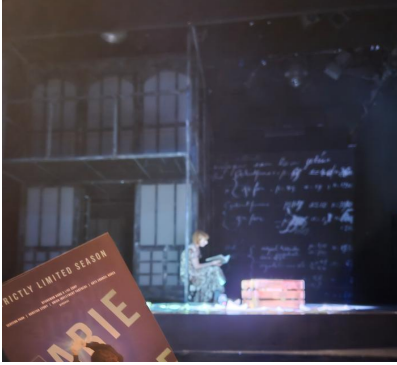
이처럼 등장인물 간 촘촘한 관계성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는 프롤로그(Prologue)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공연의 프롤로그는 삶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이를 정도로 몸이 약해진 마리와 그의 딸 이렌이 한 무대에 함께 등장한다. 이렌은 마리가 무엇을 위해 몸이 망가질 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지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며 원망 섞인 발언을 한다. 이 장면은 작품 초반에 모녀간의 복잡한 갈등 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마리가 본인의 삶을 회상하는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마리는 자신의 오래된 친구이자 지지자였던 안느를 만났던 첫 순간을 떠올리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반면 영국 공연의 프롤로그는 처음부터 무대에 마리는 등장하지 않고 딸만 등장하며 이렌이 마리가 남긴 일기를 읽으면서 그의 과거 삶을 알아가는 내용으로 장면이 축소되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처럼 프롤로그의 스토리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딸의 등장은 오프닝 역할에 그치게 되고 이에 따라 모녀의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서 해당 장면의 필요성과 설득력에 한계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 공연에서는 이렌이 흙주머니의 존재를 묻는 대사가 등장하며 마리가 안느와의 첫 만남을 상기하게 되는데 영국 공연에서

는 해당 장면이 삭제되었다. 흡주머니는 마리의 고향인 폴란드 흠을 담은 것으로, 작품의 시작을 알리는 소재이면서 마리와 안느에게는 고향을 떠올리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또한 작품을 관통하여 마리가 힘든 순간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딸과 마리의 애증과 갈등, 마리와 안느의 밀접한 관계성을 한국 공연에 비해 섬세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듯, 러닝타임 축소로 인한 등장인물간의 관계성 변화와 스토리라인의 차이는 <그림 1>과 같이 비언어 기호인 무대 장치를 통해, 그리고 언어 기호인 대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사례 1> <마리 퀴리> 한국 공연(원)과 영국 공연(오)의 프롤로그 장면⁴⁾ 비교

ST	TT
	
<p>이렌: 열이 좀 떨어졌네요.</p> <p>마리: 임종 전에 있는 체온저하. 순서대로 잘하고 있어. 정리해봤다. 공식 사인은 여기 이렇게.</p>	<p>Marie Curie (off voice): I hear the distant echo of a dream calling that I can't escape seeking out the truth. I'm running to the unknown.</p>

4) ST출처: 콘텐츠제작사라이브(2025). 뮤지컬 <마리 퀴리> 2025 공연 실황 녹화 중계(유튜브) 캡처본으로 해당 영상은 당일 한시적으로 제공되어 현재 링크가 존재하지 않음.

TT출처: 뮤지컬 Marie Curie 2024년 런던 채링 크로스 공연 촬영(연구자)

<p>이렌: 세상에 어떤 자식이 이런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요?</p> <p>마리: 인공방사능 연구는 네 개인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퀴리연구소 발전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야. 곧 노벨상도 탈 거야.</p> <p style="text-align: center;">[...]</p> <p>이렌: [...]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난 반대예요. 그래도 꼭 하셔야 겠다면 엄마가 직접 하세요. 설득해 봐요. <u>왜 그렇게 스스로 별주듯 살아 온 거죠? 원소를 두 개나 발견했고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어요. 온 세상이 고개를 숙이고 경청을 해요. 근데, 세상에 고작 이런 초라한 부고 기사 몇 줄로만 남겠다구요? 뭐가 그렇게 엄청 짓누르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관속에 같이 넣어달라는 흠주머니는 뭐예요?</u></p> <p>엄말 알고 싶어. 멀고 어려운 사람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 날 위해서. 실험실에 있을 때면, 엄만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엄만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난 짐작조차 못 해. 그게 내가 종종 실험실을 떠나는 이유야.</p> <p>마리: 잠들 때 동화책 한 번 읽어주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 <u>난 실패했어. 꼭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했지. 약속을 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었어. 프랑스로 가는 기차. 거기서부터였다.</u></p>	<p>Irene: <u>Mama, you're the great Marie Curie, and this is what you want me to publish as your obituary.</u></p> <p><u>Why don't you want to be praised? What happened, mama?</u></p> <p>Marie Curie (off voice): <u>I couldn't keep my promise to Anne.</u></p> <p><u>We both left poland to make a better life for ourselves.</u></p> <p><u>That's where it began.</u></p> <p>Marie Curie: Today I leave for Paris to begin my studies. [...]</p>
---	---

이러한 변화는 실제 현지 수용에서도 필요성과 개연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제시된 바와 같이 충분한 설명이 없어 해당 장면에서 딸의 존재가 “a) 불필요하다(unnecessary)”거나 내레이션 장치가 “b) 빈약하게(flimsy)” 느껴진다는 평론가 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 The production opens with Marie's daughter Irene reading her mother's journal, but her presence isn't consistent, so feels unnecessary. There is also a lack of development in the story between Marie and her husband Pierre, which seems a missed opportunity. (Theatre & Tonic, 2024)

b) Having begun life in Korea, and here directed by Sarah Meadows, the show incorporates Curie's diary entries with her daughter serving as a narrative prompt. This feels like a flimsy expositional device for a show keen to tell us about Curie's achievements and setbacks but without slowing down enough to unpack them. (Akbar, 2024)

또한 한국 공연에서 넘버 1막 후반부터 2막의 핵심 스토리가 되는 라듐의 양면성, 즉 암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치명적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겪게 되는 등장인물 간의 갈등과 개인의 고뇌 등의 섬세한 심리 묘사는 영국 공연에서 대폭 축소된다. 대신 라듐을 발견하면서 과학자로서 마리가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 서사의 중심이 된다. 관련 사례로 넘버 「또 다른 이름」과 영국 공연 *Another Name*을 비교해보자.

<사례 2>

ST	TT
내가 아는 모든 건 믿을 수가 없어	It's hopeless. I thought I knew what I was doing
내가 보는 모든 건 믿이지가 않아	I wonder, can I believe what I am seeing?
넌 얼마나 위험한 거야	Is my discovery really dangerous?
그것이 사실일까	I see it all so clearly
왜 나는 몰랐을까	How could I be so foolish, so reckless?
반대편 얼굴을 보고 있어	Do you have a darker side?
[...]	[...]
a) <u>멈춰. 가려던 길이 여긴 아냐</u> <u>기적. 새로운 밝은 빛을 봤어</u>	a') <u>Maybe it's much too early to be certain. Yes</u> <u>Maybe I won't regret this path I'm taking</u>
꺼져가던 불길 다시 불타게 했지	I see your potential. I've been waiting

<p>난 너를 포기하지 않겠어</p>	<p>a lifetime to find you I will never let you go</p>
<p>b) 너는 누구, 너는 무엇 너의 또 다른 이름은 나 너는 누구, 너는 무엇 너의 또 다른 이름은 나</p>	<p>b') <u>Strange, eccentric, stupid Polack</u> <u>These are names that I've heard all my life</u> I won't listen. I'll keep going <u>And the world will remember my name</u></p>
<p>넌 이상한 괴짜야 넌 떠도는 이민자 넌 설쳐대는 폴락 내 이름 없었지</p>	<p><u>I'm nothing without your light</u> <u>The darkness consumes my view</u> <u>There's one thing I can't explain</u> <u>Who are you? What are you?</u></p>

이 넘버는 마리가 자신이 발견한 라덤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과학자로서의 목표와 인류애적인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장면으로, 주인공이 처한 도덕적 딜레마가 가장 부각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와 영어 가사를 비교해보면 도덕적 딜레마를 표현하는 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ST에서 밑줄 친 a)는 라덤의 위험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민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하는 내면의 갈등이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반면 TT에서는 “확신하긴 이르다, 후회하지 않을 것” 등으로 번역되어 연구를 지속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이 기울고 그 결과 내적 갈등이 비교적 쉽게 해소되는 양상이 부각된다.

또한 ST b)에서는 “너의 또 다른 이름은 나”라는 가사가 반복되면서 양면성을 지닌 라덤과, 여성이자 이민자라는 소수자인 동시에 촉망받는 과학자인 자신의 모습을 동일시하는 마리의 심리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TT는 소수자로서 겪었던 차별을 언급한 뒤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결국 세상에 이름을 알리겠다”, 즉 과학자로서의 목표 의식을 좀 더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정리하자면, 영국 공연은 현지화 과정에서 러닝타임이 줄어들면서 스토리가 축소되고 그 과정에서 등장 인물간의 관계, 내면적 딜레마와 갈등보다는 개인의 업적 달성에 초점을 둔 서사가 부각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작품의 메시지는 명료하면서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스토리와 캐릭터는 다소 평면적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러한 변화로 인한 결과는 평론가 리뷰와 관객 관람평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밑줄로 제시된 바와 같이 평단은 “a) 마리가 겪는 딜레마가 효과적으로 부각되지 못하다”거나 “b) 인물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부재하거나 캐릭터 변화가 명확하지 않다”와 같이 등장인물의 감정이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자주 발견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c)에서와 같이 주제에 대한 공감, 캐릭터의 입체성, 대본의 완성도 측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But the show cuts back to schmaltz and an artificially upbeat end rather than staying with the discomfort of this dilemma. (Akbar, 2024)

b) See it if: you want to see a show with ‘timeless’(oldfashioned) soundtrack showing the life of Marie Curie without deepdive in the characters.

Do not see if: you like energetic shows or want to see character development. (Jeroen, 2024)

c) On top of that, probably due to the rushed storyline, character development is lacking. We don’t get to know the characters well enough to become fully invested in their journeys, and important figures in Marie Curie’s life feel more like plot devices rather than fully fleshed-out characters, which detracts from the overall emotional impact of the story. (Lamb,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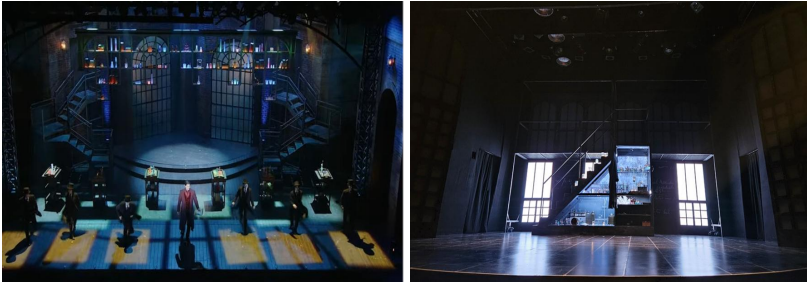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영국 공연은 한국 공연에 비해 러닝타임이 약 35분 축소되면서 스토리가 인물 간의 관계보다는 마리 개인의 서사와 업적 위주로 축약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이 빠르고 간결해졌으나, 다소 감정선이 밋밋해졌고 캐릭터 전달도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4.2 무대장치

두 공연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명확한 차이는 무대 구성 및 장치다. 우선 2020년 한국 공연 당시 <마리 퀴리>는 702석 규모의 홍익대학교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었고, 2025년 공연은 998석 규모의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진행되었다. 그에 비해 영국 채링 크로스 극장은 265석의 소극장이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무대구성과 장치에서도 많이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공연은 비교적 넓은 무대 공간 덕분에 장면과 무대 전환에 대형 회전문을 활용하였다면, 영국 공연은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무대장치가 단순화되었고 대신 가벽과 계단 장치를 적극 활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

<사례 3> <마리 퀴리> 한국 공연(왼)과 영국 공연(오)의 무대장치⁵⁾ 비교



<그림 2>의 오른쪽 무대를 보면 중앙에 설치된 계단 장치가 영국 공연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공연은 무대 자체가 회전하는 방식이라면, 영국 공연은 장면의 전환 및 시간의 흐름을 계단 장치의 회전으로써 표현한다. 예컨대, 한국 공연에서 넘버 「블랙 미스 폴란드」, 「끝까지」, 「두드려」 (<표 1> 참고)로 이어지는 장면은 비교적 긴 서사의 흐름으로 형

5) ST출처: 콘텐츠제작사라이브(2025). 뮤지컬 <마리 퀴리> 2025 공연 실황 녹화 중계(유튜브) 캡처본으로 해당 영상은 당일 한시적으로 제공되어 현재 링크가 존재하지 않음.

TT출처: 뮤지컬 *Marie Curie* 2024년 런던 채링 크로스 공연 촬영(연구자)

성되는 반면, 영국 공연에서는 동일한 넘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때 마리의 결혼, 출산, 그리고 라듐을 발견하기까지 연구 진행의 시간 흐름을 무대 중앙에 설치된 계단을 회전함으로써 안무 동작과 함께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 같은 구성은 한국 공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영국 공연만의 특색으로, 피에르 퀴리와 결혼을 반지를 끼워주는 동작으로, 출산은 아기 인형을 안고 어르는 동작으로, 연구 과정은 고뇌하는 동작으로 연출되고 이러한 안무는 다른 배우들이 계단 장치를 회전하면서 점차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안무 동작과 무대장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구현하는 영국 공연 방식은 러닝타임의 축소에 인한 스토리의 축약에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영국 공연의 무대장치 특징은 아래 평단과 관객의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교한 설계와 효과적인 작동, 안무 및 음악과의 조화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대다수의 의견에서 “a) 무대 디자인과 연출이 인상적이며, 작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낸 방식이 최근 공연 중 손꼽힐 만큼 뛰어나다”, “b) 무대 구성이 단순하지만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제작되어 무대 연출, 안무, 음악이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평하고 있다. 특히 영국 공연의 핵심이 되는 계단장치에 대해서는 “c) 이동식 계단이 인상적이며, 배우들의 동선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고 언급해 작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긍정적으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The design of the set (Rose Montgomery) was also incredibly interesting. The staging for this was also cool, they manage to do a lot in a very small space and the projection work was some of the better I've seen in recent shows. (Joanne E, 2024)

b) With moving parts and little to no blackouts, it was a tough job to ensure that the changing of set pieces was done successfully, but the way it was incorporated into the show added to the atmosphere and enhanced the performance. The set appeared simple, with chalkboards and science equipment being nowhere near glamorous, but clearly, every piece was designed and made precisely. Everything ran smoothly and although the performers were visible when moving the set, it did not appear out of

place. ...The overall direction (Sarah Meadows) was perfect, every piece of this show's puzzle was slotted together so flawlessly and kept the audience hooked for the duration of the show. The staging, the choreography, the songs, were all brought together in a perfectly blended way. (Cantwell, 2024)

c) Set and costume designer Rose Montgomery creates an impressive movable staircase that allows the cast easy access to the upper stage level and doubles up as Curie's laboratory underneath with a blackboard side covered in scientific equations to show how Curie reached her solutions. (Theatre and Art Reviews, 2024)

이렇듯, 영국 공연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무대장치가 단순화되었으나 러닝타임으로 인해 축약된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는 오히려 효과적인 방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비언어 기호와의 상호작용 역시 뛰어난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4.3 내러티브

내러티브의 변화는 두 공연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뚜렷한 장면은 마리의 주체적 여성성 표현의 변화이다. <마리 퀴리> 한국 공연은 시대적으로 당시 소외와 차별을 받았던 여성이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여성 선구자 그 자체로서의 마리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극찬을 받았다. 그러한 큰 흐름은 한국과 영국 공연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 공연에서 섬세하게 전달되었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소외의 메시지가 영국 공연에서는 다소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오랜 시간 연구에 몰두한 끝에 결국 라듐을 발견한 마리의 노력을 담은 넘버 「두드려」와 *Forty-five Months*에서 후반부 노벨상을 수상하는 장면은 그러한 태도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4>

ST	TT
<p>190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새롭고 획기적인 방사성 원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밝게 빛나는 라듐. 이를 예견하고 발견해낸 그 영광의 과학자는 바로... <u>피에르 퀴리</u>, (축하 음악) (시간 차) <u>그리고... 마담 퀴리.</u></p>	<p>The 1903 Nobel Prize for physics is awarded for revolutionary research into radiation phenomena. The great scientists we honor today are..., <u>Pierre Curie and his wife Madam Curie!</u></p>

그림 3

<사례 4> <마리 퀴리> 한국 공연에서 노벨상 수상 장면⁶⁾ (순서 왼쪽에서 오른쪽)



6) ST출처: 콘텐츠제작사라이브(2025). 뮤지컬 <마리 퀴리> 2025 공연 실황 녹화 중계(유튜브) 캡처본으로 해당 영상은 당일 한시적으로 제공되어 현재 링크가 존재하지 않음.

사회자가 노벨상 수상자를 호명하기 직전 한국 공연의 마리 얼굴에는 긴장감과 설렘, 기대감이 뚜렷하게 표출된다. 사회자가 “영광의 과학자는 바로...”라며 수상자를 호명하는 순간까지도 무대 위 조명은 분명히 마리만을 비추고 있고, 마리 역시 수상을 예견한 듯한 태도로 자신이 불리길 기다리고 있다(<그림 3> 1번 사진). 그러나 호명된 사람은 마리의 남편인 ‘피에르 퀴리’였고, 그 순간 어둠에 숨어있던 피에르의 모습이 비춰진다(2번 사진). 이 모습은 얼굴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마리의 모습과 확연히 대비되어 나타난다(3번 사진). 뒤이어 사회자가 피에르를 호명했을 때와는 다른 작은 목소리로, ‘마리 퀴리’로서가 아닌 ‘마담 퀴리’를 공동 수상자로 호명할 때는 눈을 질끈 감으며 애써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4번 사진). 이후 피에르와 함께 단상으로 이동하고 담담하게 수상 소감을 밝히는 모습이 연출된다(5, 6번 사진).

반면, 영국 공연은 이 장면을 마리가 노벨 공동 수상의 업적을 달성한 것에만 초점을 둔다. 사회자는 “The great scientists we honor today are...”, “Pierre Curie and his wife Madam Curie!”로 피에르와 마리를 함께 호명한다. 또한 한국 공연과는 다르게 부부는 처음부터 무대 위에 함께 조명을 받으며 서 있다가 호명되는 순간 동시에 미소를 지으며 수상 소감을 밝힌다. 물론, 마리를 ‘his wife’로 지칭함으로써 한국 공연에서 강조되는 마리라는 한 여성을 누군가의 아내로 명명한다는 점이 드러나지만, 한국 공연에서 배우의 표정을 통해 비춰지는 마리의 실망감과 무대조명을 통해 부각되는 마리의 심리 및 감정 상태는 영국 관객에게 명확히 전달되기 어렵다. 즉, 한국 공연은 마리의 주체적 여성성을 드러내며 심리적 변화와 감정이 효과적으로 부각되는 반면, 영국 공연은 여성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마리의 감정과 섬세한 심리변화보다는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업적 달성의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영국 공연에서 소외된 여성으로서 마리가 겪는 불평등보다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의 역경과 업적이 더 부각된 데에는 앞서 논의한 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러닝타임의 축소가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더불어 현지 관객의 정서 역시 고려되었을 수 있다. 한국 뮤지컬 시장은 관객의 7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된 반면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는 40%가 관광객이라

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광범위한 관객층에 소구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고유진, 2022; 박병성, 2023. 11. 9). 실제로 평단의 평가와 관객의 관람평을 살펴보면 “a) 마리가 성별, 인종, 지위 등 과학적 성취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당면했던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연구에 대한 집념과 열정이 부각되었다는 점”, “b) 일생을 바친 연구로 두 개의 노벨상을 당당히 수상한 뛰어난 과학자의 삶을 자세히 보여준다는 점”에 대한 호평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

a) Hampered at every turn by her race (the Polish considered very much an underclass in France of the time), her gender, and even her status, we get more than a glimpse of her determination and passion for her work. Any qualms about this being a dry tale of scientific discovery are quickly quelled. This is a story about passion, determination, and unerring belief, and it suits the musical genre beautifully. (Theatre Vibe, 2024)

b) The Curie's were and are renowned scientists who discovered Polonium and Radium. Naming Polonium after her native country, Poland. One of the many facts about Marie Curie that I wasn't aware of, the musical manages to educate those like myself who only know snippets about the brilliant scientist. Who was deservedly awarded two Nobel Prizes during her lifetime's work. (Theatre and Art Reviews, 2024)

특히 다음 의견에서 볼 수 있듯 상당수 일반 관객들은 이 작품을 “a), b), 역사적 인물”, “c) 과학자의 이야기”나 “d), e) 과학을 다루는 교육적, 교훈적 성격의 이야기”로 인식하고 그러한 측면에 호평을 내놓고 있었는데, 역시 여성 차별이나 소외보다 광범위한 위대한 과학자로서 마리 퀴리의 삶과 업적이 좀 더 부각된 결과일 수 있다.

a) See it if: you like musical infortainment. I watched mostly for knowing more about Marie Curie and was satiated. (Vinu, n.d.)

b) See it if: you love learning about historical figures. (Diyana 4225, n.d.)

c) See it if: you're into new musicals and would like to learn something that you might not already know about a scientific female icon. (Paul 7365, n.d.)

d) See it if: you like educational musicals based on fact rather fiction. (Dave B 3160, n.d.)

e) See it if: you're into physics. (Peadar 2211, n.d.)

한편, 영국 공연에서 이처럼 여성 차별이라는 주제는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지만 극 중 주요 인물인 마리 퀴리와 안느의 연대는 한국 공연에서와 유사하게 구현되었다. 다음 <사례 5>는 「그댄 내게 별」과 영국 공연 *You're the Reason*이라는 넘버로, 마리와 안느가 서로를 ‘별’에 비유하며 우정과 지지의 메시지를 나누는 곡이다. 예시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영국 공연의 가사는 전반적으로 한국어 가사를 유사하게 옮기되 “넌 항상 나였어”, “난 항상 너였어” 또는 “그댄 나의 별 하나”와 같은 비유적인 한국어 표현을 “For you are the reason”, “Yes, you are the reason”, “Yes, will always be my friend” 등 영미권 관객들이 선호하는 좀 더 명시적이고 직접적 표현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들 간 연대와 우정이라는 메시지를 영어권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홍정민, 2025).

<사례 5>

ST	TT
내가 너의 옆에 있어 줄게 밝고 푸른 그 별 하나	But even far away, your light shines through. It led me on the path straight to you.
<u>넌 항상 나였어</u>	<u>For you are the reason.</u>
너의 꿈이 나를 설레게 했어	You have always been my greatest inspiration.
<u>난 항상 너였어</u>	<u>Yes, you are the reason.</u>
내 손을 잡은 너를 따라	When I'm feeling lost or far behind,
멀리 뛰어도 조금도 숨차지 않아	I know I won't fall. For you are by my side, after all.
[...]	[...]

<p><u>넌 항상 나였어</u> 너의 꿈이 다시 날 일으켰어 난 항상 또 다른 너야 [...]</p>	<p><u>For you are the reason.</u> I don't know where I'd be today without you. Yes, you are simply the reason. [...]</p>
<p><u>넌 항상 나였어</u> 너의 눈부신 꿈들이 날 빛나게 해 [...]</p>	<p><u>You are the reason.</u> You have helped to shape the person that I am today. [...]</p>
<p>너란 별 하나 언제나 같은 자리에 <u>그댄 나의 별 하나</u></p>	<p>I know I will thrive. No matter where our journey's led. <u>You will always be my friend.</u></p>

다만, 아래와 같은 평단의 평론에서 볼 수 있듯 현지에서는 마리와 안느의 관계가 억압받는 여성 간 연대보다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인간으로서 나누는 교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두 인물의 관계가 마리의 인간에 대한 공감과 애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a) Two women meet on a train, in a flashback to Marie Curie's early life. Both are Polish, on their way to Paris. Anne is a farmhand while Marie is a young scientist who will go on to win two Nobel prizes. We follow their friendship. (Akbar, 2024)

b) I wasn't sure how well a musical about Marie Curie would be done. The production written by Seeun Choun offers an insight into the compassion Curie felt for her friends and family, [...]. (Theatre and Art Reviews, 2024)

정리하자면, <마리 퀴리>가 영국 관객을 위해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러터브의 초점이 여성으로서 마리의 고난과 성장, 극복에서 마리 퀴리라는 한 역사적 위인의 의지와 업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마리와 안느의 관계에서도 여성 간 연대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우정과 교감이 더 부각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현지 관객들은 이 작품을 난관을 극복

하고 위대한 업적을 달성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교육적, 교훈적 성격의 이야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이는 러닝타임 축소에 따른 스토리 압축을 위해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 관객이 주를 이루는 한국과 달리 다양한 관객층이 존재하는 웨스트엔드의 상황을 반영하여 가급적 넓은 일반 관객에게 소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그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음을 시사한다.

5. 결론

5.1 분석 결과 종합

본 연구는 한국 창작 뮤지컬 최초로 런던 웨스트엔드에 라이선스 수출된 <마리 퀴리>의 영국 버전을 대상으로, 그 현지화 과정을 멀티모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지 관객의 수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공연과 영국 공연을 비교하여 대사와 가사 등 언어적 기호뿐 아니라 음악, 안무(배우의 연기, 동선 등 포함), 무대장치 등과 같은 비언어적 기호들이 어떻게 다층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형성하는지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상호작용이 현지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현지 관객에게 전달되는지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영국 현지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 변화가 확인되었다.

첫째, 영국 공연은 한국 공연에 비해 약 35분가량 러닝타임이 축소되면서 서사 전개 속도가 빨라졌으며 특히 마리 퀴리 개인의 서사가 핵심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공연에서 두드러졌던 등장인물 간의 복잡적이고 미묘한 관계성이나 인물의 내면적 갈등은 상대적으로 단순화되었으며, 대신 여성 과학자로서 마리 개인의 업적과 성취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었다. 더불어 넘버와 넘버 사이를 연결하며 서사를 보완하던 장면들도 축소되었는데, 현지 관객들은 작품의 서사적 개연성과 캐릭터의 입체성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평가는 현지화 과정에서 러닝타

임을 축소하거나 서사적 초점을 변경할 때 서사의 개연성과 인물 구축의 정교함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둘째, 영국 공연은 채링 크로스 극장이라는 소규모 공연장 환경에 맞추어 한국 공연에 비해 무대 규모가 대폭 축소, 단순화되었다. 이러한 제한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단 구조물을 창의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는 러닝타임 축소로 인해 압축된 서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해당 장치는 안무와 음악 등 다른 비언어적 기호들과도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작품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현지 관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화 과정에서 무대의 물리적 규모보다 다양한 언어, 비언어적 기호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무대 구성 방식이 더 중요함을 드러낸다.

셋째, 영국 현지화 과정에서는 마리 퀴리의 주체적 여성성을 재현하는 내러티브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한국 공연이 당시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을 경험한 여성 마리의 내면적 갈등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여성 선구자로서의 삶과 주체성을 다층적으로 조명하였다면, 영국 공연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마리 퀴리와 그녀가 남긴 과학적 업적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내러티브가 전개된다. 그 결과, 현지 관객들은 이 작품을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작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한국 공연에서 강조되었던 주체적 여성성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나, 현지에서 재구성된 새로운 내러티브 역시 관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현지 관객에게 익숙한 역사적 인물과 그 업적을 중심으로 서사를 재구성한 전략은 효과적인 시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2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시사점

그렇다면 향후 한국 창작 뮤지컬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해당 문화권에서 성공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 홍정민(2025, p. 265)은 목표 문화권 관객들의 기대지평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작과 관객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나아가 현지화 과정에서 작품과 관객의 기대지평이 효과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뮤지컬이 영미권 현지화 과정에서 고

려해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현지화 과정에서는 한국 창작진과 현지 프로덕션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라이선스를 수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번역과 각색, 캐스팅, 연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작품이 무대에 오르는 전 과정에서 해외 프로덕션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해당 문화권 관객의 문화적 감수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더불어 서사와 캐릭터에 대한 기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작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품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뮤지컬 <마리 퀴리>는 대본 번역 단계부터 한국과 영국 창작진의 협업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현지 배우들을 오디션 통해 선발하고 현지 언어로 공연했다는 점에서 관객과의 심리적, 문화적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지화 과정에서 내러티브의 전개방식과 서사적 개연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뮤지컬 <마리 퀴리>의 사례와 같이 현지화 과정에서는 러닝타임이 축소되거나 무대 구성이 변할 수도 있으며 혹은 핵심 서사를 풀어나가는 내러티브의 전개 방식 또한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객에게 익숙한 인물과 사건을 재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감정과 사건의 흐름을 얼마나 새롭고, 입체적이며,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있다. 특히 감정선과 인물 간 관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할 경우, 관객은 서사에 대한 몰입과 공감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마리 퀴리>의 영국 공연에 대한 일부 관객 반응에서는 감정 표현과 캐릭터 구축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났으며, 이는 현지화 과정에서 서사의 개연성과 내러티브 전개 방식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율하느냐가 작품의 수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음악과 무대장치, 그리고 공연 구성에서의 시청각적 경험 역시 현지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마리 퀴리>의 경우 영국 공연은 협소한 환경에서 구현되었음에도 무대구성과 연출, 또한 음악측면에서 현지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는 웨스트엔드가 오랜 공연 문화의 전통 속에서 대극장뿐 아니라 다양한 규모의 소극장 공연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관객들이 다소 낯설 수도 있는 작품의 음악적 구성과 연출 방식에 대해 비교적 큰 이질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 반드시 영미권 뮤지컬의 형식을 모방할 필요는 없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대의 물리적 규모 자체가 아니라, 스토리, 음악, 무대장치, 안무와 같은 다양한 언어, 비언어적 기호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작품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해외 무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영어권 시장 진출과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 작품 가운데 최초로 영미권에 라이선스를 수출하고 한국어 대본을 영어로 번역하여 현지 무대에 올린 <마리퀴리>의 사례를 멀티모달적으로 고찰하고 성공적 현지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도출함으로써 해당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여타 창작 작품의 전략 수립과 방향성 모색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성 (2023. 9. 25.)은 한국 창작 뮤지컬이 K-드라마, K-pop, K-웹툰처럼 ‘K-뮤지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내 창작진의 양성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피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창작진과 해외 현지 연출팀이 협업하여 작품을 각색하고 영어로 공연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 방향 수립에도 실질적인 청사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콘텐츠제작사라이브. (2025). 마리 퀴리 프로그램북. 광림아트센터 BBCH홀. LIVE Corporation. (2024). Marie Curie Program book. Charing Cross Theatre. 콘텐츠제작사라이브. (2025. 9. 21.). 뮤지컬 마리 퀴리 공연 실황 녹화 증계. YouTube.

<2차 자료>

- 고유진. (2022. 2. 21.). 여성 주연 뮤지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스타인뉴스. <https://www.stari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019>
- 고승희. (2021. 3. 16.). [지속가능한K] (4) K뮤지컬, 어디까지 왔다. 헤럴드경제.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6000441>
- 고승희. (2021. 4. 7.). 콘텐츠 갈증 + 정서공감 + K팝스타, K뮤지컬, 日무대서 뜨는 이유 셋.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07000420>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 (n.d.). 공연통계. 결산통계. https://kopis.or.kr/por/stats/perfo/prefoStatsPerformance.do?menuId=MNU_000151
- 김선영, 이의신. (2018). 뮤지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아웃바운드 프로모션 사례 연구 - K 뮤지컬 로드쇼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0(1), 67-98.
- 박민선. (2013. 2. 21.). 케이뮤지컬의 진출, 공연 산업의 신호탄. 예술경영웹진. <https://url.kr/xzhtbf>
- 박병성. (2021). K-뮤지컬 한류, 전망과 과제. 한국예술연구, 34, 5-28.
- 박병성. (2023. 9. 25.). [뮤지컬] K-뮤지컬, 새로운 K-콘텐츠로 떠오를 수 있을까? 한류조사연구아카이브. https://www.archivecenter.net/hallyuresearch/archive/collection/ArchiveCollectionView.do?con_id=3265
- 박병성. (2023. 11. 9.). 동양의 브로드웨이를 꿈꾸며. [POST] 국립극장. <https://blog.naver.com/ntok2010/223751628041>
- 박정선. (2025. 7. 15.). [세계로 가는 韓 뮤지컬②] 제2의 ‘어쩌면 해피엔딩’ 탄생도 가능할까.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2390/%EC%84%B8%EA%B3%84%EB%A1%9C-%EA%B0%80%EB%8A%94-%E9%9F%93-%EB%AE%A4%EC%A7%80%EC%BB%AC%E2%91%A1-%EC%A0%9C2-%E2%80%98%EC%96%B4%EC%A9%8C-2025>
- 서은영. (2017. 9. 14.). [서은영의 독무대] 코리아 뮤지컬, 진화하는 브로드웨이

이 도전공식.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OLOWC PAR2>

용원중. (2022. 8. 16.). 뮤지컬 ‘마리 퀴리’, 폴란드 ‘황금물뿌리개상’ 수상 쾌
거. 싱글 리스트. <https://www.sl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76818>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2015년 공연예술실태조사(2014년 기준). 문화체육
관광부.

이동인. (2023. 11. 17.). 뮤지컬 본토서 러브콜 K뮤지컬 한계는 없다. 매일경
제. <https://www.mk.co.kr/news/culture/10877720>

이정국. (2025. 8. 17.). 국외 진출 창작 뮤지컬 금의환향...‘위대한 개츠비’
‘마리 퀴리’ 공연. 한겨레. <https://v.daum.net/v/20250817140613748>

이정국. (2026. 1. 15.). 창작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브로드웨이
월드 UK·웨스트엔드 어워즈 수상.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music/1239783.html>

이지민, 정지윤. (2022). 라이선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언어적 요소와 비
언어적 요소 번역 사례 연구: ‘내일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1),
101-133.

이태훈. (2025. 6. 10.). ‘어쩌면 해피엔딩’, 소극장서 ‘N차 관람’ 이어져... 8년
만에 브로드웨이 무대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culture-life/performance-arts/2025/06/10/Z2HZQ75N4VCVBJO4XQZ4EATC7A/>

이혜성. (2021. 7. 13.). 창작뮤지컬 중국 진출 및 현황.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
시즌6 “창의특강 1”.

<http://www.glocalmusical.com/About/AboutDetail?playNum=34&articleNum=183>

임가을. (2023. 12. 4.). 뮤지컬 ‘라흐 헤스트’ 미국 브로드웨이 리딩 쇼케이
스...현지화 가능성 모색. 스포츠W.

<https://www.sportsw.kr/news/newsvie w.php?ncode=1065584968545474>

장병호. (2024. 7. 16.). 탄탄한 스토리·철저한 현지화의 힘...뮤지컬 본고장이
열광했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9366638955176&mediaCo>

deNo=257&OutLnkChk=Y

정수영. (2025. 10. 10.). 1930년대 천재 문인들의 사랑과 예술...뮤지컬 ‘팬레터’ 10주년. 뉴스1.

<https://www.news1.kr/life-culture/performance-exhibition/5937249>

최승연. (2024. 9. 30.). 피쳐 [칼럼] 창작 뮤지컬에서 ‘뮤지컬’로. 더뮤지컬.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5368>

최승연. (2025. 11. 27.). 피쳐 [칼럼] 2025년 뮤지컬 총결산①. 더뮤지컬.

<https://ch.yes24.com/Article/Details/81740>

최영현. (2023. 4. 13.). 피쳐 [Special]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② - 라이브 강병원 대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더뮤지컬.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508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 10. 12.). 시리즈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중장기단체소개] 영국 공연의 중심 웨스트엔드에서 선보이는 K-뮤지컬, 아이엠컬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711680&memberNo=1921669&vType=VERTICAL>

허미션. (2025. 6. 25.). [비바100]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안될 이유가 되는 이유, 치열한 ‘진심’ 그리고 한국 관객들”.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625500071>

홍승연. (2022). 멀티모달 텍스트로서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정민. (2021). 패밀리 뮤지컬 번역과 아동 관객: <마틸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1), 313-350.

홍정민. (2022). 뮤지컬 번역에서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멀티모달적 고찰: <썸씽로튼>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3), 125-153. 한국학술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홍정민. (2025). <어쩌면 해피엔딩>의 성공적 수용과 영미권 진출 K-뮤지컬의 번역에 대한 시사점. 번역학연구, 26(3), 255-291.

Akbar, A. (2024, June 10). Marie Curie review — Musical dash through the scientist’s life leaves your head spinning. *The Guardian*.

- <https://www.inkl.com/news/marie-curie-review-musical-dash-through-the-scientist-s-life-leaves-your-head-spinning>
- Broadway League. *Broadway season statistics*.
<https://www.broadwayleague.com/research/statistics-broadway-nyc/>
- Cantwell, A. (2024, June 8). Marie Curie | Charing Cross Theatre. *Adventures in Theatreland*.
<https://www.adventuresintheatreland.com/post/marie-curie-charing-cross-theatre>
- Carpi, B. (2020). A multimodal model of analysis for the translation of songs from stage musicals. *Meta*, 65(2), 420-439.
- Esslin, M. (1987). *The field of drama*. Methuen.
- Hong, J.-M. (2020). Taboos, translation, and intersemiotic interaction in South Korea's successful musical theaters.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53(5), 1179-1201.
- Kowzan, T. (1968). The sign in the theater (Simon Pleasance, trans.). *Diogenes*, 61, 52-80.
- Lamb, L. (2024, June 8). *Review: Marie Curie the musical, Charing Cross Theatre*. West End Best Friend.
<https://www.westendbestfriend.co.uk/news/review-marie-curie-the-musical-charing-cross-theatre>
- Show-score.com. (n.d.). *Marie Curie London member review*.
<https://www.show-score.com/uk/london/off-west-end-shows/marie-curie>
- Society of London Theatre & UK Theatre. (2025). *The state of British theatre in 2025: Growth, risk and the urgent need for public investment*. Society of London Theatre & UK Theatre.
<https://uktheatre.org/wp-content/uploads/sites/2/2025/05/SOLTUKT-State-Of-British-Theatre.pdf>
- Theatre and Art Reviews. (2024, June 8). *Marie Curie a new musical*. Theatre and Art Reviews.
<https://theatreandartreviews.com/2024/06/08/marie-curie-a-new-musical/>

Theatre & Tonic. (2024, June 9). *Marie Curie musical, Charing Cross Theatre review*. Theatre & Tonic.

<https://theatreandtonic.co.uk/blog/marie-curie-musical-charing-cross-theatre-review>

Theatre Vibe. (2024, June 9). *Marie Curie: Science and obsession make for a musical treat*. Theatre Vibe.

<https://theatre vibe.co.uk/2024/06/09/review-marie-curie-the-musical-charing-cross-2024/>

A Multimodal Analysis of the Localization of Korean Original Musical *Marie Curie* and Its Reception in the English-Speaking Market

Seungyeon Hong

Departmen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Jung-min Hong (corresponding author, drew97@dongguk.edu)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localization strategies adopted in the British production of the South Korean original musical *Marie Curie*, the country's first musical show staged in London's West End. Using a multimodal framework that considers both linguistic elements, including dialogue and lyrics, and non-linguistic elements, including stage design, choreography, and music, the study compares the Korean and British productions to assess how multimodal changes reshaped meaning for local audiences.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key areas of localization. First, the British production shortened the running time by about 35 minutes, emphasizing Marie Curie's individual achievements over the Korean version's complex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motional tensions. Second, the stage design was simplified for a smaller venue: whereas the Korean production used a rotating stage, the British production used a rotating staircase, together with movement and music, to effectively mark scene transitions and the passage of time. Third, the British version diluted the representa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Marie Curie's agency while placing greater emphasis on her scientific legacy. Reviews and audience responses praised the production values, staging, and effective use of limited space, but they also criticized the reduction in character development, emotional depth, and narrative coherence, possibly due to the compressed structu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although adjustments in duration, subject matter, and narrative focus can assist cross-cultural localization, maintaining emotional nuance and dramatic plausibility is crucial

for engaging the target audience. The study offers practical insights into how Korean original musicals can be adapted for successful reception in English-speaking markets.

Keywords: Korean original musical theatres; Marie Curie; translation; localization; multimodality; export to English-speaking market

키워드: 한국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 번역, 현지화, 멀티모달리티, 영미권 진출

홍승연(제1저자, <https://orcid.org/0009-0000-5291-796X>)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객원강의교수

hsy8677@hufs.ac.kr

홍정민(교신저자, <https://orcid.org/0000-0002-7909-4032>)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 전공 부교수

drew97@dongguk.edu

논문 투고일: 2026년 5월 11일

1차 심사 완료일: 2026년 5월 3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6년 6월 9일

게재 확정일: 2026년 6월 14일